금호타이어 새해 벽두 '덜컹'

노조 낙하산 대표이사 반대·단체행동 예고
인력 재배치·휴무방안 등 단협안도 입장차

금호타이어가 새해 벽두부터 덜컹거리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노조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고 단체행동을 예고한데 이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영업오더(주문) 축소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는데 따른 인력 재배치·휴무방안 조정을 둘러싼 갈등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낙하산 인사 반대! 단체행동 예고**=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일 더블스타 차이융션 회장과 장쥔화 더블스타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이대현 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대표이사 선임 의견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보낸데 이어 지난 11일 이 전 부행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우려를 넘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더블스타측에 보낸 문서에 "제조업 현장을 잘 아는 인사로, 연구·개발·생산·영업·판매·구매 등 회사 내부 구성원을 어루만지고 무너진 해외영업망을 정상화할 자질과 덕망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제조업 현장 경험이 전무한 금융계 인사는 경영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경영실패의 원인이자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관리 담당한 산업은행 채권단 관계자가 대표이사 후보로 거명되는 데 금호타이어 구성원은 분노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또 "선임될 시 강력한 반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달 긴급성명서를 내고 '낙하산 대표이사 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갈등 지수 낮추기 힘드네**=인력 재배치, 공장 휴무일 조정 등을 둘러싼 단체협상도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1일까지 9차례의 단체협상 본교섭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꼽는 쟁점 사항은 330명 가량의 생산직 유휴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과 최장 101일에 이르는 공장 휴무(광주공장 44일, 곡성공장 60일, 평택공장 101일) 문제로,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사측은 올해 영업 목표로 매출액 5.1% 증가, 매출량 5.8% 증가 등을 제시한 상태로,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인력 재배치나 공장 휴무 일정 수립 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노조는 월별 해외영업 판매단가가 생산 단가보다 낮았던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사안일한 경영 행태로 인한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돌려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 안팎에서는 공장 휴무가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와 직결되는데다, 노조가 지난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에 '상여 800% 중 2019년 이후 상여 200%를 반납'키로 한 상황에서 추가되는 금전적 불이익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생산라인을 점거한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들의 현장 점거 농성에 따른 손실과 관련, 법적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다른 갈등 구조를 만들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 새해에 듣는다 송종욱 광주은행장

"지역민 상생 100년 은행 만들것"

"올해는 광주은행이 100년 은행을 향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상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연임에 성공한 송종욱 광주은행장의 신년 포부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난 한해 광주은행 현장 경영 일선에서 획기적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양하는 등 취임 후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송종욱 은행장은 '100년 은행'이라는 또 다른 사명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100년 은행을 향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행장은 이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 영업기반 고도화 ▲수도권 지역 특화영업 추진 ▲디지털 영업 강화 라는 3대 영업전략을 기반으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밝혔다.

실천방향으로 미래성장 구축, 경영효율성 제고, 철저한 리스크관리,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송 행장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자금 선순환과정에 기여하는 향토은행의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 수도권 영업은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미래 성장엔진과 같은 곳으로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핀테크와 금융 업무의 디지털화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다양한 비대면 상품개발, 어플 설치가 필요없는 모바일웹뱅킹 실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한 PPR시스템, 영업점 무방문 서비스를 확대한 스마트뱅킹 리뉴얼 등으로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 특화영업 추진
지역기업 생산성 극대화
핀테크·금융업무 디지털화
중서민 상품·청년창업 지원
지역민 행복주는 나눔활동

특히 송 행장은 미래성장의 키워드로 '고객'을 강조한다. 고객 한분 한분의 자산이 은행의 근간이고, 고객은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광주은행만의 매력을 어필하는 진정성 있는 영업의 실천을 주문한다.

이와함께 송 행장은 광주은행이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및 중서민 전문은행'이라는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흔들리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과 동행하고 상생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중서민을 위한 금융상품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송 행장은 상생과 동행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광주·전남 전 영업점에서 여름에는 무더위심터, 겨울에는 한겨울쉼터를 개방해 지역민들의 안식처를 만들었다. 예술과 문화가 주는 풍요로운 지역민의 삶을 위해 한국화 공모전인 광주화루를 개최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을 창단 지원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나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도 송 행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고, 지역민과 함께 웃고, 지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받는 광주은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종욱 행장은 "지난 50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원해주신 고객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역민이 주인인 광주은행은 지역대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낼 것이다"며 "무엇보다 지역 현안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분을 다하는 광주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차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23일부터 국내 1700대 한정 판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 오는 23일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아이언맨 에디션은 세계 최초 마블 캐릭터 적용 양산차로, 전 세계에 7000대를 판매할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1700대만 한정 판매한다. 가격은 2945만원.

현대차가 마블과 2년에 걸친 협업으로 개발한 아이언맨 에디션은 지난해 7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8 코믹콘' 개막식에서 쇼카로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외장은 무광 짙은 회색(메탈릭 그레이)으로 1963년 마블 코믹스 시리즈의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에 처음으로 등장한 아이언맨의 오리지널 수트 색상을 본떴다. 영화로 잘 알려진 아이언맨 수트의 전용 빨간색은 포인트 색상으로 적용했다.

전면부는 마블 로고가 새겨진 V자 모양의 후드에 아이언맨 마스크의 눈매를 닮은 주간주행등, LED 헤드램프, 메탈릭 그레이 색상의 그릴 등을 갖췄다. 측면부에는 아이언맨 마스크 엠블럼, 아이언맨 마스크 휠캡 등을 장착했고 후면부 번호판 위에도 아이언맨 글자를 새겼다. 실내에도 아이언맨 마스크와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의 회사(스타크 인더스트리) 로고 등을 시트와 클러스터에 넣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에어서울 14일부터 파격 항공권 판매
日·홍콩·괌 등 노선 할인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로 봄꽃여행이나 여름 휴가를 갈 기회가 생겼다.

에어서울은 14일 오전 11시부터 18일까지 파격 항공권을 판매하는 '사이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이다 특가'는 1년에 단 두 번 실시하는 이벤트로, 에어서울의 전 노선 항공권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 최저가는 1000원짜리 일본 편도 항공운임으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하면 3만6900원이다. 동남아는 4만9900원짜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편도 총액(유류세+항공세) 기준 일본 동경은 4만1900원부터 판매되고 오사카·후쿠오카·오키나와·다카마쓰는 3만9900원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일본 삿포로 항공권은 4만1900원부터 판매되고 홍콩(4만9900원~), 다낭·보라카이(5만9900원~), 코타키나발루, 씨엠립(6만9900원~), 괌은 7만9900원부터다.

해당 노선 탑승 기간은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이지만 5일 동안 매일 특가 좌석이 제공되는 만큼 첫 날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4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1	14	30	33	38	2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16,095,714	17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35,934,900	88
3	5개 숫자일치	1,269,989	2,490
4	4개 숫자일치	50,000	119,648
5	3개 숫자일치	5,000	1,901,965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새해 '워라밸'하세요

- '워라밸'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
- 워라밸 문화의 중심, 생활문화센터
- '문화관광도시' 부산을 가다

신년기획-2019트렌드

2019 기해년
나만의 컨셉을 연출하고, 필환경의 감성으로 거듭나기

해외 문화 현장⑤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미술관

세계미디어아트시티를 가다①
예술교육과 일상에 빛 밝힌
독일 칼스루헤 ZKM

예향이 만난 이 사람
'2년차 기적' 이룬 광주FC 나상호
청룡영화상 수상 광주 영화감독 허지은

예향 초대석
요리와 연기의 고수
김수미
"내게 음식은 그리움, 요리는 행복"

문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⑮
통영 바다 닮은 유치환의 시
청마문학관

화제의 전시
외로운 생애, 따뜻한
그림으로 남은 화가 박은용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㊲
우리 시대 스타 메이커들
별들의 만드는 장인들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㉓
로버트 모제스 Vs.
제인 제이콥스

화제의 공연
80년의 뜨거움
2018 소리모아 무대

한국영화 100년, 남도 시네마 산책①
한 세기 남도의 영화 "레디 고"
1900년대 초 영화관부터
지역의 영화, 감독, 작품까지 조명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①
'책 읽는 서울' 이끄는
지식문화발전소
서울도서관

문화 화제
목포 김우진 골목에서 드라마보다 진했던
천재 극작가의 문학과 사랑 만나다